



봄을 데리고 온 '경칩' 경칩 3월 6일(양력) 기상청은 7일 전국 낮 최고기온을 서울 18도, 대구22도 등 울돌머 가장 포근한 봄날씨를 예보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대구·경북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인데도 낮 최고 20도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보다. 상춘객의 계절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린다. 경칩일, 초목은 짙은 푸른빛을 준비하고 개구리는 풀썩 썩다. 겨울잠 동물들이 깨어나고 만물이 꿈틀거리는 절기다. 영천시 성내동 9-2, 보물 제 521호 영천 송렬당(永川 崇烈堂)에도 여지없이 계묘년(癸卯年)의 봄이 노크해 왔다. 입구 표지석과 고즈넉한 돌담 사이로 완연한 봄 기운이 스며들고, 중삼문 뜰에 잠자던 잔디에도 생기가 돌았다. 송렬당의 주인 '위양공 이순몽 장군'을 지켜오던 정헌 매화도 활짝 웃으며 꽃망울을 터트리 (꿀벌)손님을 맞았다. 자작나무는 회색 속살을 드러냈고 산수유도 포근한 봄 기운에 서둘러 노란 의복으로 치장했다. 영천에서 가장 먼저 매화 꽃망울을 터트린 송렬당의 봄 기운을 본지가 7일 카메라에 담아 봄이 시내 한 복판에 들어왔음을 알린다. (글 김효정 기자, 사진 장지수 기자)

영천, 조합장선거 당선자 확정

19명 출마 9명 당선... 무투표 당선 3곳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영천 무투표 당선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영천지역 당선자



한편, 지역 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수명에 돈봉투 돌렸다는 신고가 영천경찰서에 접수되면서 각 후보들에게도 한 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지난해 2월 한 조합 '금품 살포'로 수명이 구속되는 등 아픔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역 조합 소식통과 영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쯤 면지역 한 후보측 A씨가 B씨등 수명에게 각 20만원씩의 돈을 뿌렸다는 신고가 6일 영천경찰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영천지역 조합장 당락이 확정됐다.

영천시선관위(위원장 김경훈)는 8일 오후 8시께 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5시까지 마감한 지역 9개 농·축·산림조합 투표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지역 9개 조합에서 모두 19명이 출마해 이 중 무투표 당선된 3곳(▲영천축협 김진수, ▲금호농협 김천덕, ▲산림조합 이성기)과 ▲고경농협 이상혁, ▲북안농협 김진구, ▲신녕농협 이구권, ▲영천농협 성영근, ▲임고농협 최용수, ▲화산농협 정낙은 등 9명이 최종 당선 확정됐다.

이들 당선자는 8일 선관위 개표 현장에서 영천시 선관위로부터 당선교부증을 받았다.

에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선거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하거나 선거인 등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지위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모두 63명을 입건해 그 중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2명을 수사하고 있다. 장지수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1차 52.93% 과반↑ 당대표 당선 확정

T·K 김재원, 17.55% 득표
 최고위 재입성 성공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 4선 중진 김기현 의원이 1차에서 52.93%의 과반 이상의 득표해 당대표로 선출됐다. 또 T·K 지역을 대표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17.55%를 얻어 최고위원 재입성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결과 발표에서 선거인단 총 83만7236명 가운데 46만1313명(55.1%)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24만4163표를 얻어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4명의 최고위원에는 ▲김재원(17.55%), ▲김병민(16.10%), ▲조수진(13.18%), ▲태영호(13.11%)가 당선됐다. 또 청년최고위원에는 ▲장예찬(55.16%)후보가 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 최고위원(회)은 당연직인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당 대표 지명(1인)과 여성 1인을 포함한 이번 당선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장지수 기자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염원!

2023 영천봄 벚꽃 100리길

새악리톤대회

2023년 4월 2일(일) 10:00 (집결: 오전 9시)

영천담공원 일원

접수마감: 2023년 3월 13일까지

※종 목: 5Km 건강달리기, 10Km, Half

※접수방법: 인터넷접수(영천벚꽃100리길 마라톤대회 http://runyc.kr)

※참가비: 5Km 건강달리기-15,000원, 10Km·Half-30,000원

※문의전화: (054) 331-6029(영천벚꽃100리길마라톤대회추진위원회)

※주최: 영천시체육회, 영천시, 영천시마라톤연합회

※후원: NH농협, K-water 포항권지사, 영천상공회의소, 대한불교조계종 충효사

문의 054)331-6029

“영천시는 9년간의 부당이익금 반환하라” 영천신녕공설시장 상인회

상인들이 대신 지불한 전기·물세 1억3000만원 영천시 손해사정 결과 1억5000만원 물어줘야 그러나... 영천시 뒷북 행정 비난 피할 수 없어 -영천시, "민사조정 제기하면 협의로 주겠다" -市 자문변호사들, 상인들과 "협상하라 주문" -행정재산의 임·대차시 분명한 특약 있어야 -공용물 공동전기료 명확히 안한 市 책임有 -정확한 금액 산출되면 적극 해결 의지 있다.

경북 영천시가 지불해야할 전기·물세 등 1억5000만원(추정)을 9년간 상인들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영천시를 상대로 한 신녕공설시장(이하 시장) 상인들의 부당이익금 반환 민원이다.

2일 시장 상인회(회장 현해수)에 따르면 "영천시가 지급해야 할 영천시 소유 공설시장 내 가로등과 화장실, 공동통행로(천정 등) 등 공동 전기료를 2013년 시장 준공 후 2022년 12월까지 9년간 무려 1억5000만원의 전기·물세를 상인들이 대신 부담해 왔다"며 市에 이같은 부당이익금에 대한 반환을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계량기 하나로

요금을 부과하면서 입주 상인(51세대)들의 1/n로 나누어 부담한 누진요금까지 부담해 한전과 영천시 상수도만 살찌웠다"고 항변이다.

상인회는 또 "영천시가 이같은 사실을 인정 하면서도 수년 전부터 (부당이익금)반환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이유로 그 동안 쉬쉬해 오면서 인사이동으로 담당자만 변경돼 시간끌기를 일관하고 있다"며 영천시의 감추기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본지 취재 결과 영천시는 2009년 사업비 117억원을 투입해 신녕면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신녕공설시장' 시설현대화로 2013년 준공해 상인들에게 임대(입주)했다.



현해수(신녕상인회장)

이 과정에서 市는 상인들과 시설물(점포)을 인계하면서 가로등과 화장실, 공동통로(천정 등) 등 공공용도를 구분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사항도 없이 9년 동안 전기·물세 등 공동요금을 각각 세대에 1/n로 나누어 부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市는 상인들의 민원을 제기 받고 뒤늦게 지난해 중순 부당이익금을 반환하기 위한 손해사정 용역 결과까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해사정 역시 1억5000만원 정도의 부당이익금을 산출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市는 지금까지 반환은 고사하고 오히려 상인회에 "민사소송



(조정)을 제기해 달라"고 요청까지 한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상인회가 먼저 조정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상인회는 "1억3000만원으로 금액까지 하향 조정해 양보하면서 상인들 스스로가 법정에서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영천시에도 통보했다"면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또 상인회는 "市가 부당이익금을 반환할 경우 행정(공무원)의 관리부실이 드러나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법원소송(조정신청)을 유도하며 시간 끌기를 하는게 아니냐"는 반박이다.

반면 영천시는 "우리도 일부 부

당이익은 인정하고 고문변호사 의견도 들었다. 특히 경북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해결 의지를 보였으나 경북도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다시 해결방법을 찾고있다"면서 분명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다만 市는 "(반환할)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면서 "우리 시가 조정신청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속히 진행해 오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늦어도 연내로는 민원을 해결하겠다"면서 본지 취재에 뒤늦은 해명을 해왔다.

여기에 상인회장은 "협의를 현장실사 등으로 1년 반이상을 기다리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공무원의 책임지지 않으려는 민원 자세가 불만이다. 오는 3월 말까지"다"면서 더 이상 지연은 안된다.면서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편, 영천시는 올해 1월부터 각 상인(세대)별로 개인별 전기 개량기와 상수도 개량기 및 공용 개량기를 구분해 2월 부터는 개인별 요금부과 체계를 완료했다.

장지수 기자

지역 축산 최대 단체 한우협영천시지부, 신임 지부장 A씨 취임 논란

이사회, 전 지부장(B씨) 도덕성 논란 제명 후 신임 지부장(A씨) 고속도로 IC 음주 교통사고 6일 임원회 소집, 이사회 개최 여부 판단해

지역 축산 최대 단체인 사)전국 한우협회 영천시지부(이하 지부)가 신임 회장(A씨 60) 취임을 두고 도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월18일경 고속도로 IC 내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차를 폐차하는 등 검찰 조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초 전 지부장 B씨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도덕성 논란이 일자 전 지부장 B씨 사퇴를

위해 앞장선 장본인이다.

2일 지부 일부 전·현직 임원 및 회원들(이하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직전 지부장 B씨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해 사퇴를 제기할 당시 수석부지부장 지위에 있으면서 당시 책임론 일환으로 임원들의 선제적 일괄 사퇴 유도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앞장선 임원 일괄 사퇴 이유도 B씨의 자진 사퇴를 중용하기 위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

다. "B씨가 물러날 의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A씨가 앞장선 대목이다.

B씨는 결국 지부장직을 사퇴하고 회원 및 조합에서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A씨는 그동안 지부장 권한대행을 맡아오다 올해 1월 중순 이같은 음주사고를 일으켰다.

A씨 자신이 도덕성 문제로 B씨의 사퇴에 앞장서 놓고 정작 자신이 음주교통사고로 도덕성 문제에 휘말려있는데 봉사단체인 지역 최대 축산단체를 이끌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지부 감사는 B씨 도덕성과 관련해 이사회를 소집해 전 지부장 B씨를 제명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전·현직 임원 및 일각의 회원들은 "법적인 지부장 취임 자격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A씨는 당시 수석부지부장으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B씨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B씨가 사퇴했는데(이사회는 제명) 이제와서 음주사고 자신이 지부장에 취임하는것은 맞지않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회원은 "지부장에 취임해도 도덕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테고 봉사단체인 지역 최대 축산단체인 한우협지부를 이끌어 가는데도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본다"면서 "A씨 스스로의 거취표명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제가 음주사고를 낸 것과 B씨의 사퇴를 주장한 사실도

맞다. 다만 당시 수석부지부장으로 이사회소집 권한은 없으며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해 B씨를 제명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음주 사고는 인사 사고 없이 모두 잘 처리했다. 도덕성 논란이 있다면 이사회 판단을 받을 사안인지 6일 임원회에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임원회의는 6일 A씨의 회장 취임을 승인했다.

한편, 영천시 축산과에 따르면 전국한우협회영천시지부 회원은 540여명으로 지역 전체 1049 한우농가의 52%에 이르는 지역 축산 최대 단체로 파악됐다. A씨의 취임식은 오늘 10일이다.

장지수 기자

영천 하수관로정비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영천시환경사업소 총 사업비 226억원 규모 「영천처리구역(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구고용노동청, 사고 당일 작업중지 명령

경북 영천시 고경면 영천시 관급 공사장에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던 A씨(57)가 숨겨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영천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15분쯤 현장 하수관로를 정비하던 A씨가 굴착기로 흙막이 벽체

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2.9t(톤) 무게의 흙막이 벽체가 떨어지면서 벽체에 맞아 숨졌다.

사고 공사는 영천시환경사업소 총사업비 226억원 규모 「영천처리구역(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토목)」으로 공식 계약업체는 S인터네셔널(강원도), 시공사는 D건설, H업체가 책임감리를 맡고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사고 당일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즉각 사고현장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작업중지 및 현장 보존을 명령했다.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있다는 이유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으로 사업

주·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한편, 사고 현장은 폭 6m의 좁은 강변도로다. 사고 사흘째인 지난달 28일 현재 문제의 흙막이 벽체가 강둑 범면 쪽에 널려져있고, 강바닥과 도로 가장자리에는 흙관 등이 방치돼 있다.

특히 이날 오전 8시 30분에는 시공사 직원들이 공사 현장 도로변에 새로 공사 안전 안내 간판을 설치



하는 등 뒷북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본지에 포착됐다.

장지수 기자

육군3사관학교 58기 생도 477명 졸업 (장교)소위 임관식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가에 충성, 국민에 헌신!"
김세화 소위(25) 최우수 성적 '대통령상' 수상

영천 육군3사관학교(교장 방성대 소장) 제58기 졸업 및 임관식이 지난달 28일 교내 충성연병장에서 열려 477명(여생도 48명)의 초임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이날 임관식은 지난 2월 21일 신입생 444명의 입학식 후 6일만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4년 만에 외부 참석(초청)이 허용되면서 전국에서 가족·친지, 동문 등 4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졸업생들은 지난 2021년 입학해 2년 동안 군사훈련 등 교육 병행으로 군사학과 일반학과를 취득해 장교(소위) 임관과 동시에 육군 간부의 길을 걷게된다. 임관식에서는 58기 졸업생 중 김

세화 소위(25)가 최우수 성적으로 대통령상을 받았고, 국무총리상은 박광민(23), 국방부장관상은 김건아(21), 합참의장상은 유예나(22) 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군의 소중한 자산은 인적 자원"이라면서 "부하를 진심으로 아끼고 국가에 충성, 국민에 헌신하는 리더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한우 기자



영천, '건조특보' 속 산불 또 산불... 최근 5일 사이 3건 잇따른 발화

소방당국, 건조주의보 속 대형 산불 우려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 당부

영남지역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1시 8분쯤 경북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영천시 화북면 오리장림에서 본 화남면 산불 모습(사진=본지 애독자)

보현산 자락에서 불이 나면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5일사이 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2시 화남면 죽곡리 야산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119산불특수대응단 26명 등 소방인력 42명을 포함해 영천시청 43명, 경찰 2명 등 총 87명의 인력을 동원됐다. 또 같은달 28일에는 전전날 화남면 죽곡리 산불 발생 이틀 만에 같은 화남면 월곡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불은 오후 2시 17분께 화남면 월곡길 270-1 인근 밭에서 불이 나 산으로 옮겨 불은 다음 북동

풍을 타고 화북면으로 확산하면서 영천시가 주민들에게 "화북면 오리장림 문화강당으로 대피해 달라"는 안전문자를 발송해 한 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46명(소방 14, 시청 30, 경찰2)의 인력과 장비 15대(소장7, 시청3, 경찰1) 등 소방헬기 4대를 동원한 상태에서 오후 4시께는 영천시의 의용소방대(전체 489명)에 긴급 출동명령을 전달해 인력을 보충하기도 했다. 특히 잇따른 산불에 뒤이어 이달 3일에는 오후 1시 8분쯤 경북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보현산 자락에서

불이 이날 오후 5시쯤 완진됐다. 보현산 불은 "산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주민 신고로 이날 오후 1시 22분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140명의 인력과 헬기 4대 및 장비 36대를 동원해 임야 0.5ha를 태우고 3시간 30분 만에 완진 됐다. 한편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 6일 현재 경북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지난 5일 경산시 남천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최근 8일 사이에 총 17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전국 건조특보에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만큼 산불 및 각종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센트럴어린이집 "우리도 자원재활용으로 자연보호 할래요!"

'재활용품 교환사업' 영천 첫 어린이집 참여한 종이팩→화장지, 폐건전지→새 건전지로 '아이들 작은 재활용 마음, 어른 확대 기대'

우유를 먹은 후 우유팩을 깨끗이 씻어 말리고 폐 건전지 등을 모아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새 건전지와 휴지로 교환해 준다. 정부 추진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품 교환사업'이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분리배출 과정에 참여토록 하면 어릴때부터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중요성과 환경보존을 위한 재활용자원의 올바른 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지난달 24일 영천시 중앙동사

무소(동장 황재철)에 따르면 지난 22일 영천 시립문외센트럴어린이집(원장 백경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모은 약 10kg의 종이팩을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와 휴지와 교환해 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천 지역에서 어린이집이 '재활용품 교환사업'에 참여한 것은 센트럴어린이집이 처음이다. 황재철 중앙동장은 이날 이같은 고사리 손길을 반겨 맞고 "아이들

의 작은 재활용 손길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확산해 환경보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문외센트럴어린이집 백경희 원장은 이번 교환사업 참여와 관련해 "어릴때부터 환경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사용하고 버리는 작은 종이팩 하나라도 우리 환경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다"며 참여 의미를 덧붙였다. 또 백 원장은 "이런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지속적으로 펼쳐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할 방침이다"고 했다.

김효정 기자



"봄꽃 나들이 개화예측지도 보고 정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봄의 문턱에 들어서며 나들이를 준비하는 국민들을 위해 우리나라 주요 산림의 2023년 봄꽃 개화 예측지도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봄꽃 예측지도는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국립산림과

학원 그리고 지역 공립수목원 9개소가 공동으로 진행해 산림 15개 지역과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9개소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진달래, 빛나무류와 개나리의 만개를 예측한 것이다. 김효정 기자



* 기준 : 개나리, 진달래, 봄꽃류 개화 50% 이상

맞벌이 가정 아픈 아이, 픽업→병원→귀가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

‘모이소’ 앱에 신청

경북 신도시와 안동, 예천 지역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아프면 무료 병원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부모 대신 아이를 픽업해 병원 치료 후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경북도는 2월 22일부터 돌봄 취약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이같은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는 병원 진료의 전 과정(아동 픽업, 진료, 귀가)을 지원 사업으로 대상 아동은 만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다.

병원 진료 후 진료 결과도 문자로 안내해 준다.

서비스 신청시간은 22일부터(진료당일) 오전 7시부터 9시 30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단 병원비와 약제비는 부모가 부담한다.

신청은 플랫폼 ‘모이소’ 앱을 통

해 회원가입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자녀의 병원 진료로 휴가를 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긴급한 상황의 아동의 건강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앞서 경북도는 작년 9월 경북도

청 신도시 지역에서 이같은 사업을 시범 운영해 올해는 안동시와 예천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2026년까지 아픈아이 긴급돌봄 사업을 현재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될 방침이다.

김효정 기자

경북도, 탄소·자동차탄소 포인트제... 가계부담 절감



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수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대수 추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단지(1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에서 수도, 전기, 도시가스의 각 사용량이 과거 2년간(2년 미만 시 1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 감축되면, 정해진 포인트(1~2원)에 따라 인센티브(현금)를 제공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10만원이 지급된다.

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s://cpoint.or.kr>)에서 상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를 대상으로 차량등록 후 누적 주행거리와 참여기간 중 주행거리의 감축

량·감축률을 비교해 참여자에게 유리한 조건 적용으로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친환경차량인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량은 제외대상이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3월 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 지역 참여현황을 보면(지난 1월 기준) 경북은 117만 8040가구 중 13만 1074가구(11.13%)만 개별참여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8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도는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유도를 위해 반상회보 홍보, 안내책자 배부를 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경북도는 난방비 폭등과 고유가에서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탄소·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경북교육청, 41개 늘봄학교 시범 운영... 영천은 3곳 시작

자천초, 신녕초, 영화초 운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3월부터 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운영될 늘봄학교는 경북 내 18개 지역, 41개 학교이며 포항이 5개로 가장 많고 영천은 자천초, 신녕초, 영화초로 3곳이 선정됐다.

늘봄학교에서는 △초1 새싹교실 △아침돌봄 △저녁돌봄 △일시돌

봄 △방과후 연계형 틈새돌봄 등이며 학생과 학부모 수요에 탄력 대응하고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개별 맞춤 프로그램,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교육청은 시범운영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사 또는 늘봄학교 행정 지원 인력 배치 △프로그램 강사 및 안전지원인력 배치 △경북 늘봄학교 운영 체제 구축 △늘봄학교 시범운영 길라잡이 보급 등으로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와 경북교육청 정책국장은 7일 구미왕산초를 직접 방문해 늘봄학교 시범 운영이 원활하도록 점검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통해 경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2025년에는 모든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700만원(1대당) 올해 마지막

매연저감장치 지원 후 2년 미경과-지방세 체납은 제외



영천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금년 부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앞서 시는 2021년 14대, 2022년 12대, 올해는 8대를 지원하며 1대당 700만원의 금액 변동은 없다.

이달 24일부터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차량소유자는 제출서류 구비후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mecar.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나 영천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례조항으로 2023년 말까지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

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하거나, 2022년 11월 1일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를 행한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사용을 위해 LPG차량(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을 새로구입할 경우 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대상이다. 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후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효정 기자



청도, ‘생활SOC복합화사업’ 2025년 마무리 가속도

총 사업비 244억원, 지상3층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청도군(군수 김하수)이 국무조정실 주관 공모사업인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달 24일 화양읍 동천리 청도국민체육센터 일대에 들어설 청도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에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설계공모 당선작까지 선정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2021년 국무조정실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59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해 청도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중이다.

여기에 군은 지난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98억 원을 더해 총사업비 244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형수영장, 문화센터, 청도아트홀(공연장) 등 지하1층 ~ 지상3층의 연면적 7,152㎡ 규모로 청도생활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군은 3월 초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5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체적 시설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수영장형)에는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실 ▲생활문화센터에는 주민자율학습공간, 주민자율마루공간, 전시공간, 자료실, 열람실 ▲청도아트홀(공연장)은 400석 규모의 공연장과 분장실, 기계실 등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한우 기자

포항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동물용의약품산업 거점 지정"

그린바이오 기업 육성 탄력

지난해 3월 준공된 포항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6대 거점 중 동물용 의약품 산업 거점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6일 그린바이오 산업의 본격적 육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포항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이같이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이번 육성 전략은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 10대 주



요 과제가 포함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종자,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 6대 분야 산업 거점(가칭, 그린바이오 허브)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번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통한 포항 중심의 그린바이오 유망벤처기업 유치와 육성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여기는 스페인 바로셀로나” MWC 현장 돋보기



스페인 바로셀로나 MWC 현장에서 구현모 KT대표와 면담을 하고있는 이철우 도지사(오른쪽)



스페인 바로셀로나 MWC 참가기업 부스에서 두 팔을 벌려 KT의 동작센서를 시연하는 이철우 도지사(사진=경북도)

M전시서 경북 새 길 찾는다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
첨단 통신장비 기업 유치 약속
MWC 현장 기업인 면담
글로벌 협력방안 모색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메타버스, AI 등 미래 핵심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경상북도를 만들

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에 참석해 이같이 천명하고 MWC 참여 기업인들과 4차산업혁명 시대 경북경제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모색했다.

MWC(Mobile World Congress)는 CES, IFA와 더불어 세계 3대 IT 전시회로 매년 2월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

신 산업 전시회다. MWC는 글로벌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모바일 산업 분야 혁신기업들이 참가해 통신장비, 모바일디바이스, 5G, AI, 메타버스 등 다양한 신기술과 신제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동향 파악에 막대한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보인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소재 유일한 참여기업인 애그유니와 초거대 AI 개발·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삼성전자, SKT, KT 기업관 및

맥스트관을 방문해 공동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한층 발전된 XR메타버스 기술력에 큰 관심을 나타낸 이 지사는 메타버스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경북과의 기술협력 및 신산업 추진과 관련해 적극 논의했다.

이 지사는 삼성전자, 화웨이, SKT 등 참가기업 임원들과 MWC 참가기업 대표, KT 구현모 대표 등과 개별담담을 갖고 메타버스,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북과의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MWC가 다가올 6G 시대를 대비한 기업들의 무한 기술경쟁의 현장임을 실감했다”고 현지에서 전시회 참관 소회를 전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런 경쟁 속에서 메타버스 수도 경북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첨단 통신장비 기업들을 반드시 경북에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지수 기자

경북관광상품, 드라마 촬영지 등 8개 선정

태교여행, 은하수체험

경북도는 지방시대의 지역 관광산업을 선도할 ‘2023년 시군별 대표·야간관광상품’ 지원 대상으로 대표4개, 야간 4개로 총 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관광상품은 도내 시군에서 신청한 19개(대표 11, 야간 8) 사업 중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PT발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대표관광상품에는 △(문경시) 드라마 촬영세트장을 활용한 매직판타지 로드벤처 △(고령군) 지산고분군과 가야금을 활용한 왕의 길, 현의 노래(王道絃歌) △(성주군) 세종대왕자태실을 연계한 세종대왕이 선택한 태교여행 △(칠곡군) 호국평화를 테마로 한 매일매일 칠곡소풍 등이다. 야간관광상품에는 △(경주시) 역

사유적과 설화를 활용한 ·신라달빛기행(별을 품은 달) △(안동시) 월영교 야경과 원아엄마 스토리를 접목한 달빛투어 달그락(樂) △(예천군) 금당실 고택마을을 활용한 금당야행(달콤한 용문) △(울릉군) 청정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나리 빛나는 밤에 만나요 등으로 이르면 4월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부터 관광상품 공모사업을 격년제로 선정·지원해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관광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에 주력할 시기라며 “선정된 8개의 관광상품이 축제·웰니스·농촌체험 등으로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고 내실을 키우는 관광컨텐츠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사진=경북도제공> 안동 월영교 야경



경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학생자치 활성화 워크숍

정책 방향 안내·활성화 방안 모색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일 용비관에서 23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장학사와 주무관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주시민교육, 평

화·통일교육, 학생자치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또 워크숍은 특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학생자치에 대한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협의를 통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학생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울진 해양암반수, 4만병 첫 해외수출 길

환동해산업연구원 10년 노력
3일 2억원 첫 수출 선적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지하 1050m 해양 암반수가 인도네시아로 해외 처녀 수출 길에 올랐다. 개발 10여년 만이다.

경상북도 환동해산업연구원(이사장 이철우, 원장 전강원)은 지난 3일 연구원 전정에서 경북도와 울진군, 연구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암반수 4만병(500ml/1병) 첫 수출 선적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선적식 음용수는 환동해산업연구원과 아리바이오(대표 박영찬)가 공동 개발한 1050m 동해안 해양암반수(염지하수)다. 염지하수(해수와 담수가 혼합된 지하수)는 2012년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경북도 공모 ‘염지하수 이용 미니리생산 수경재배’로 ‘FTA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농수산기술개발사업’의 연구과제로 채택되면서 그동안 Ca, Mg 등 미네랄이 풍부한 음용수로 개발돼 국내에만 판매해 왔다.

이번에 선적된 해양암반수는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것으로 물량은 500ml 4만병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판매가격은 1병당 5천원 내외로 약 2억 원에 달한다.

김효정 기자

포항시,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

총 5억5000만 원 투입

경북 포항시는 3일,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총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수소연료전지 분야 우수기술 및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의 전주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포항시는 산업부에서 인정하는 ‘수소 전문기업’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2023년 예비 수소 전문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포항테크노파크(이하 포항TP)에서 수행하는 이번 지원 사업 선정대상은 본사 또는 지사가 포항시에 소재한 수소 기업이며 최근 3개년도 평균 매출액 20억 이상 1개 사와 20억 미만 7개 사로 신청기간은 3월 3일부터 24일까지다. 박한우 기자

경북도,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단 위촉... 자발적 재능기부 조직

도내 17개 시·군 200여명... 1:1 비대면(온라인) 수업도

경북도는 '2023년 경상북도 학습지원단 위촉식'을 지난달 28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하고 본격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한다.

경북도 학습지원단은 검정고시 과목지도가 가능한 퇴직교사, 대학생, 학원강사, 일반인 등 17개 시군에서 200여명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재능기부 조직이다.

또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 및 학업 복귀에 도움을 주고 은둔형 청소년이나 교통편이 어려운 경우 1:1 비대면 온

라인 수업도 진행한다.

도는 지난해 말 기준 1450명의 학교밖 청소년중 검정고시 합격 662명, 상급학교 및 복교 49명, 학교재적응 20명, 대학진학 188명 등으로 총 919명이 학업에 복귀하고 531명이 사회에 진입했다.

이날 위촉식은 경북 학습지원단 및 사업 담당자 55명이 참석해 우수 학습지원단 표창, 신규 학습지원단 위촉, 학교 밖 청소년과 관계 맺기에 관한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김효정 기자



영천 폴리텍 로봇캠퍼스 신입생 모집

3월 14일까지 선착순



영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이달 14일까지 로봇기계, 로봇전자, 로봇자동화, 로봇IT 등 4개 학과에 대해 2023학년도 신입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로봇캠퍼스는 올해 2월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국내 유일 로봇 특성화 대학으로 취업난 속에서도 ㈜화신, 세왕금속, 삼익THK, 로보스타 등으로 지역 기업과 졸업생 90%(2023년 2월 대학 자체 기준)가 전공과 관련된 취업이 됐다.

시는 로봇캠퍼스와 협력해 2022학년도 기준 재학생이 받은 전체 장학 금액은 총 등록금액의 149.8%로 90% 이상의 재학생이 장학금 혜택과 기숙사비 지원을 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노인대학 제28기 입학식... 연말까지 함께 하길

(사)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부설 노인대학(대학장 이육만)은 제28기 노인대학 입학식을 지난 3일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노인대학생, 기관단체장 등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국민의례, 노인강령 낭독, 학사보고, 학장 환영사, 회장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대학은 관내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며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영천시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된다. 노인대학 프로그램은 치매예방, 건강체조, 교통안전, 일반시사, 문화예술체험,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된다.

이육만 노인대학장은 "다양한 배움을 통해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오늘 입학하시는 모든 분들이 연말에 있을 졸업식까지 모두 함께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청도] 올해 어린이집 1개소 첫 폐쇄 저출산, 보육시설 수요 급감 영향

청도군-국·공립, 민간·가정 등 10개소에 449명
경북-(10년 사이)2264곳→1463곳, 35% 감소

경북 청도군이 올해 들어 어린이집 1곳이 첫 폐원 절차를 밟고 있다.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달 28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전체 10개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6일 이같이 밝혔다.

청도군의 이같은 어린이집 폐원은 저출산 영향으로 보육시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전국적 현상 속에 갈수록 출생아 수까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군은 금년부터 지급되는 70만 원의 부모급여도 보육시설 이용률 저하 이유로 보고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저출산방지 정책이 우선 되어야만 어린이집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아이 한명만이라도 더욱 소중한 시대에 영유아 놀이터시설,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새 정책"을 마련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도군에는 6일 현재 국·공립 5개소, 민간 3개소, 법인 과 가정어린이집 각 1개소 등 모두 10개소 어린이집에 449명의 원아가 보육을 받고있다.

반면 경북도 어린이집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2년 2264개소에서 2022년에는 1463개소로 801개소(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큰 폭으로 줄었다. 민간어린이집은 2012년 911곳에서 594개소로 317개소(34%) 줄었고, 가정어린이집은 1081곳에서 479곳으로 54%(584곳) 줄었다.

이같이 어린이집 감소 이유는 경북 역시 청도군과 같은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보육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2012년 경북지역 연간 출생아 수는 2만4635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1만1300명으로 54%(1만3335명) 급감했다. 박한우 기자

영천시, 북스타트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 운영



영천시는 지난달 28일 북스타트 책 꾸러미를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다.

북스타트는 출생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 사회 문화운동으로 연령별 단계에 따라 그림책 2권과 독서 가이드북, 유아용품등을 에코백에 담아 책꾸러미로 제공된다.

시는 기존에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 대해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확대돼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를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엄마랑 북플레이를 이달부터 5월까지 12개월~24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천시립도서관에서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북스타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www.yclib.go.kr) 또는 전화문의(☎054-339-777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효정 기자

경북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통장으로 결혼준비 OK!

결혼자금 지원, 지역정착 유도 2년간 월 15만원 저축하면 1060만원(+이자) 목돈 마련

경북도는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신규 인원 120명을 모집해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실시한다.

사랑채움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2년간 월 15만원씩(총 360만원) 저

축하면 경북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1년 간 분기별 175만원씩(총 700만원) 추가 적립해 최종 만기 시 10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도는 낮은 임금과 안정적인 주거 마련의 어려움에서 더 확대돼 인구 감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문제 해결책으로 2019년 첫 시행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약 370명이 참여해 1천만원대 목돈 마련과 주거

립 및 결혼준비에 도움을 준 성과를 냈다.

올해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20명의 신규 인원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경북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김효정 기자

영천 신녕면, 3·1절 맞아 존경·감사의 마음 전달

신녕면 내 124명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거주



영천시 신녕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손태국)는 104주년 3.1절을 맞아 지난달 27일 독립유공자 예우 및 보훈정신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을 방문해 고귀한 희생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 감사의 뜻을 담아 서한문을 전달했다.(사진)

손태국 신녕면장은 “3.1절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유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독립유공자 예우 및 보훈정신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면에는 현재 총 124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거주하며 참전·보훈예우수당 지급, 위문품 전달, 안부확인 등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앞장서고 있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 '중소기업 기술인증 지원사업' 시행

기업당 최대 100만원(1회)
기술 인증 3개 분야 9개 항목

영천시는 기술경쟁력강화와 혁신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인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혁신형 기업 인증(이노비즈, 메인비즈, 싱글PPM품질혁신인증, KOSHA18001), ▲벤처 인증(혁신성장기업,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 인증(신기술, 신제품) 3개 분야 9개 항목이다.

올해 기술인증을 취득한 지역 내 중소기업이 신청대상이며 기술인증 평가수수료 및 감사료 전액지원, 기업 당 최대 100만 원까지 연중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단, 타 지원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인증 취득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제외되며, 두 가지 이상의 기술인증을 받더라도 당해연도에는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영천시 기업유치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천시는 24일부터 올해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정적 경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시는 2022년도에 상반기 55건, 하반기 20여건으로 총 75개 농가에서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관내 농민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해당 농가는 전기 및 철선울타리 시설 설치 소요 비용

의 60%(최대 지원금 전기: 100만8000원 철선: 230만4000원)를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이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향후 5년간 시설물을 사후 관리해야 한다.

단,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와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아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금제도도 있으니 피해 발생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효정 기자

영천교육지원청, 성인 문해교육 '글새암' 공부방 개강

영천교육지원청은 7일 경상북도교육청 급호도서관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2023년 글새암 우리말 공부방”을 개강했다.

이날은 지역 어르신 16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수업이 운영됐다.

글새암은 11월 30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2시간씩 문해교육 및 생활 밀착형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글새암」은 ‘글이 샘솟는 곳’이란 뜻으로 물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글이 샘솟아 즐겁게 배운다는 의미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글새암 우리말 공부방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에게 제2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배움을 통한 기쁨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 17일부터 마·미·삼 소비촉진 행사

영천강변공원에서 19일까지

영천시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영천시 강변공원에서 '2023년 영천시 마미삼(마늘·미나리·삼겹살) 소비촉진 행사'를 계획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3일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영천시미나리작목반연합회, 신녕농협, 영천축협, 대한한돈협회 영천시지부 등이 모여 실무협의회도 개최됐다.

시는 회의를 통해 강변공원에서 480석 규모의 마미삼 구이 식당 운영과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다.

또 시 홍보대사 유튜버 상해기(본명 권상혁)가 참석해 영천 홍보에 나서며, 영천시 농특산물과 영천와인 직거래장터도 운영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 임신·출산·육아... 맘(MOM)프로그램

영천시는 24일 보건소에서 관내 등록 임신부 20명을 대상으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임신부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임신부 건강교실은 2월 말부터 4월까지 9주동안 매주 운영될 예정이다.

건강교실 이론수업은 분만과정에 대해 미리 배우고 임신 중 구강관리, 산전·산후 우울증, 아토피 피부염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출산을 위한 임신부 요가, 정서적 안정을 주는 꽃꽂이 태교등으로 실기수업도 운영된다.

한편 향후 4월 17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해 예비·신혼부부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 31일까지 슬레이트처리 지원 신청하세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영천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희망자를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사회취약계층, 빈집정비사업 등 타사업 연계 대상자, 면적이 작은 건물이 우선된다.

시는 이날부터 신청받아 올해 11월까지 10억 200만원(국비 4억5100만원, 도비 1억3500만원, 시비 4억1600만원)의 사업비

를 294동(주택 200, 비주택 18, 지붕개량 16, 보관·방치 60)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따라 ▲주택 352만원까지 우선지원, 최대 700만원 ▲축사, 창고 등 비주택 200㎡ ▲지붕개량 300만원까지이며, 취약계층은 주택의 경우 전액, 지붕개량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 금액 초과분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체 철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3월부터 운영

농번기 현장 인력 공급서비스 제공

영천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농업기술센터 중앙농업인상담소(역전로 12) 및 각 읍면농업인상담소를 활용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센터 운영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심화되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는 인근 도시 및 지역 내 유휴대체 인력을 확보해 인력을 중개함으로써 봄·가을 농번기에 농가 작업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을 농번기에 농가 작업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농촌일자리 참여 농작업자에게 교통비·영농작업반장수당 및 구직신청 등록과 동시에 단체상해보험가입 혜택 등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4년간 자체 구축한 농촌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인력 D/B를 확보해 농가와 작업자를 중개해 지난해 3656농가에 5만 6778명의 인력을 제공했다. 김효정 기자

임종택의 『숲과 人間』 ⑥



임종택

◆자작을 누가 뒤라했다고?

나무 껍질을 불에 태우면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름을 붙였다는 자작나무, 북유럽과 러시아 동토의 세상에 펼쳐진 설원의 하얀 광야에도 투명하게 빛나는 고고한 모습이 마치 왕자의 품격 같다. 많은 시인들이 자작나무의 아름답고 맑은 품성을 노래했다.

시인 도종환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자라온 고향의 풍경에서 바라본 자작나무를 닮아 맑으나 창백했다고 고백한다. 세상의 나무들이 모두 두껍고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을 때 자작나무는 오로지 곱게 단장한 하얀 모시적삼 얇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고고한 선비의 정신을 나무결 속 깊이 감추고 있는 것 같다.

◆북극 동토의 땅에 뿌리내린 자작

북극 동토의 땅에서 더욱 빛나는 자작나무는 껍질에 테르펜(terpene)류인 베톨린이라는 기름 성분이 있어 불을 잘 얻지 못하는 그곳 설원의 특성상 척박한 환경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살아온 원주민들에게 자신의 몸 일부를 희생해 쉽게 불을 얻을 수 있도록 비정한 생물과의 공생의 삶을 허락해온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작나무는 겨울이면 더욱 환하게 빛난다. 또한 봄날에 시작하여 가을 낙엽이 지기 전 떨어지는 물방울 모양과 같은 잎은 바람에 잘랑거리며 어두운 숲속에서도 자신의 곧고 우뚝 솟은 빛나는 존재를 드러내며 새벽을 맞이하기도 한다. 겨울밤 희미한 별빛만 깜빡거리는 숲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자작나무, 이는

자작자작 소리나는 자작나무 이야기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감과 경외감을 갖게 해서 오랜 세월 자신도 모르게 자작나무 숲에 매료되어 찾아가곤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뤄지는 자작의 사랑이야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닥터지바고라는 영화를 기억할 것이다. 하얀 눈이 덮힌 설원의 풍경 속에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작나무 숲이 여러 번 등장한다. 사랑하는 지바고의 연인 라라와의 마지막 사랑을 나누고 떠나는 얼음성 같은 집 창가에 눈부시게 서 있는 자작나무를 뚫고 밤이면 음산하게 들리는 늑대 울음 소리가 헤어 집의 슬픈 예언을 말하고 차디찬 동토의

시인은 자작나무를 닮고 싶다

긴 겨울 밤 숲속의 등불 자작
자작 껍질로 사랑을 기다린다
결혼식 樺燭(화촉)의 '화' 자작
자작의 고향은 북극 동토의 땅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자작나무의 숙명처럼 인간의 숙명도 자신이 뿌리 내린 그곳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감동적인 영화다.

많은 팬들은 이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또 서양에서는 자작나무 껍질을 얇게 벗겨 연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면 이루어진다는 속설도 전해온다. 종이에 써도 될 것을 애써 자작나무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겨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던 젊은 청년 남녀들의 애뜻하면서도 힘들었던 시대적 사랑을 이해할 듯 싶다. 노란 은행잎이나 너른 갈잎에 연서를 써서 보내던 지난 날 우리의 시대를 추억해 본다면 말이다.

◆자작나무 아픈 이야기

하지만 자작나무는 봄날 꽃가루로 인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나무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유발로 유명한 나무는 소나무나 참나무 그리고 자작나무 등인데 자작나무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연원은 식물분류학상 참나무목으로 후손에게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준 결과라 볼 수 있다. 요즘 결혼식장에서 쓰이는 용어 중에서 신랑과 신부의 어머니가 함께 촛불을 켜는 '화촉을 밝힌다'라는 의식이 있는데 樺燭(화촉) 즉 '화'는 자작나무를 뜻하는 말이다.

껍질에 기름 성분이 많아 불이 잘 붙는다는 것을 옛 조상들은 알았던 것이다. '촉' 역시 등불을 밝히다라는 의미인데 지금은 화촉의 화가 나무 목(木)변이 사라진 다른 의미의 한자인 華(화), 즉 꽃이 피다, 혹은 빛나다라는 의미로 현대식 결혼 풍습을 반영한 한자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런데 자작나무를 뜻하는 樺가 '인문학으로 본 나무 이야기'의 저자 나영학은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뱃나무를 뜻한다고 말하는데 아무튼 기름 성분이 많은 관계로 불에 잘 타 주위를 밝고 환하게 비춘다는 의미에서 벚꽃이 피는 속성과 닮았다.

◆자작나무 생리 이야기

뱃나무의 한자 檜(檜)자는 앵두나무 혹은 뱃나무와 같이 쓰는 한자다. 즉 이 나무의 속성인 아름답고 환하게 일시에 꽃이 무리지어 피는 개화 특성상 불이 잘 붙는 자작나무의 속성을 닮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물론 자작나무의 생리적 특성은 추운 곳에서 잘 견디도록 진화해 왔는데 추운 겨울에는 나무의 세포 내에 결빙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을부터 서서히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물을 최대한 줄이고 낙엽이 지기 전 태양 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당분 즉 탄수화물을 많이 만들어 자신의 몸에 저장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결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결빙이 일어난다는 뜻은 얼음 결정에 의해 세포가 파괴된다는 의미로 곧 세포가 죽는다는 뜻이다. 많은 탄수화물이 만들어져 몸 안의 수분과 섞이면 수액의 어는점이 최대한 내려 동결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생리적 반응은 환경에 철저히 적응하고 진화해온 자연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작을 먹는 사람들

자작나무 껍질은 다양한 용도로 쓰였는데 기름 성분이 많다는 것은 껍질이 방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작나무 껍질을 물이 닿는 배의 바닥 소재로 쓰기도 했다. 이렇듯 방수는 물론 벌레와 곰팡이에도 강했으니 천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알려진 자작나무 껍질은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천마총의 천마도 중에서 말 안장 부분에 그려진 그림이 종이 대용으로 이 자작나무 껍질을 이용해 그리고 습기가 많은 땅속 고분에 지금까지도 오랜 세월 잘 보관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자작나무는 봄에 일찍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사포닌 성분이 많은 수액을 채취해서 마시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이러한 수액이 진해 거담 항균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수액에 대장암 억제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도 밝혀냈다. 생활면에서는 수액이 들어간 된장 제조나 수액으로 만든 막걸리 등 자작나무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임새가 풍부한 나무임을 알 수 있다. 굳이 등불을 밝히지 않아도 어둠을 밝혀주는 나무, 동토의 땅이 태생인 자작나무가 햇빛을 반사하고도 그 몸 속에는 어찌 뜨거운 불꽃이 타고 있는지, 군더더기 하나 없는 몸매에 눈은 또 어찌 그리 크고 맑은지, 어느덧 땅 속 잔뿌리는 물을 밀어 올리고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가지의 눈에서는 불꽃으로 피어 올라 자작은 또 다시 비상할 준비를 한다.



커다란 눈처럼 보이는 자작나무 옹이의 모습



겨울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자작나무



사계절 하얀 껍질로 둘러싸인 피부가 신비롭다



자작나무의 껍질에는 베톨린이라는 기름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

우종철 칼럼



우종철 (본지 객원논설, 일요서울 논설주간)

‘회색인 보수들’과 백제의 충신 성충

회색 인간 이준석, 유승민 간첩을 존경한다는 천하람 백제 충신 성충에게 배워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온 ‘얼치기 보수’ 후보가 당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년 전 C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정희 대통령은 평가할 만한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던 천하람 후보는 지난 2월 23일 강원도 합동연설회에서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말하면 중복 좌파인가? 신영복 선생의 베스트셀러 책을 읽은 수많은 국민도 다 중복 좌파인가?”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관해 기사 댓글에서는 “간첩을 존경한다는 걸 중복좌파라 안 부르면 깨어 있는 시민이라고 불러야 하나?”라는 등의 비판이 비등했다. 국민의힘의 뿌리인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하고, 간첩으로 전향하지 않은 자(신영복)를 ‘선생’이라 칭하는 천 후

보의 주장에 동조할 당원들이 얼마나 될까. 천 후보를 포함한 멘토 격인 이준석, 유승민 등은 정통 보수 정당이라는 옷에 어울리지 않는 ‘회색인(灰色人)’이 아닐까.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당 대표 경선에서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주장으로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에게 뒤졌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이겼다(좌파 지지). 배신의 아이콘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령으로 몰아넣는 ‘내부 총질’을 벌이자 보다 못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 보수 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사태까지 가고 보수 궤멸을 가져온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라며 ‘박근혜 탄핵 원죄론’까지 꺼내 들은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것이었고, 보수 궤멸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제 탄핵으로 이어져 우리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원희룡 후보는 어떤 형식이든 탄핵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탄핵하겠다”라며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일관했다. 정당은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결사체이다. 개혁보수로 위장하여 ‘보수의 정체

성’을 어지럽히고 ‘우파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 천하람, 이준석, 유승민은 한패가 되어 조롱성 메시지들로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다. 이들은 선당후사(先黨後私)의 대의(大義)를 백제의 충신 성충에게서 배워야 한다. 성충(成忠, ?~656)은 일명 ‘정충(淨忠)’이라고도 하며, 의자왕과 같은 부여(扶餘) 씨로 백제 왕족 출신이다. 논리가 명확하며 언변이 뛰어나고 병법에 밝아 가히 하늘이 낳은 재사라 할만했다. 백제가 멸망하기 4년 전인 656년(의자왕 16) 3월. 좌평(佐平·1품) 성충은 자만과 주색에 빠진 의자왕에 극간(極諫)하다가 투옥되었다. 성충은 “살아서 내 두 눈으로 백제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며 단식하다가 옥중(獄中)에서 비장한 상소를 올린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략) 무릇 군사를 쓸 때는 반드시 지세(地勢)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니, 적병이 만약 오거든 육로로는 탄현(炭峴·옥천)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로로는 기벌포(伎伐浦·금강하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며, 그 험준하고 좁은 곳에 의지하여 방어하여야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삼국사기》) 계백 장군의 5천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패전했다는 전황(戰況)을 보고받은 의자왕

은 “후회로다. 내가 성충의 충성된 말을 듣지 않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라고 탄식하였다. ‘초심을 유지하면 절대 일을 망치지 않는다(初心不亡·초심불망).’는 철리를 망각한 의자왕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여 오욕을 뒤집어썼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 하겠다. ‘당나라 침공’과 ‘전쟁 대비’의 주장을 펴 ‘선견지명의 충절’을 발휘했던 비운의 주인공. 성충을 경모한다. 하는 필자의 자작 한시를 소개한다. 忠臣炯眼不堪亡(충신형안불감망) 충신은 통찰력으로 나라 망함을 건널 수 없었고 落日扶蘇苦憶樛(낙일부소고억량) 부소산에 해가 지면 괴롭게 (백제)대들보 기억하네. 慢恃潛龍能護國(만시잠룡능호국) (백마강) 잠룡이 호국 신이라고 오만하게 믿었는가? 若依險勢保全王(약의험세보전왕) 험한 지세 의지했다면 왕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上疏耿耿公明策(상소경경명우책) 옥중 상소는 제갈량의 묘책처럼 굳은 믿음을 있는데 誤判區區築紲疆(오판구구결주강) 보잘것없는 (조정)오관은 하·은처럼 멸망 초래했네. 白馬天寒?益愴(백마천한풍익창) 백마강 날씨가 차면 파도 소리 더욱 슬프고 奈何破棄佐平方(내하과과좌평방) 어찌하여 성충의 방책을 파기해 나라를 잃었는가?

돋·보·기

영천시, '주민동의서' 인·허가 민원에 악용하나 행정 입맛따라 손바닥 뒤집기

청통면 호당 주민들, "주민의견없는 주민동의서" 시, "주민동의서 인·허가 법적 요건 아냐, 참고용" 시, 행정 편의주의적 인·허가 해석, 결국 권익위에 환경부 지침 무시하는 영천시, 직무유기 지적 환경부, '주민동의서' 두고 '상위 법령 근거 없는' -허가 제한 시 조례·지침 개정 및 폐지" 지침

영천시가 각종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지만 행정 입맛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의 잣대로 삼는 등 오히려 행정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혐오시설이나 악취 발생 업종, 개발 행위 등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인·허가 민원인 경우 영천시의 이같은 악용사례가 더 빈발하다는 것. 3일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인근 4개 마을 주민 대표 등에 따르면 "영천시가 지난해 7월과 10월 호당리에 2건(축사A 1458㎡, 축사B 925㎡와 퇴비사 325㎡)의 축사(우사

신축허가를 각각 내 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영천시는 "주민동의서(의견서)는 받으면서도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의견은 아랑곳 하지 않고 허가를 승인했다"며 격분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할 거면 처음부터 동의서는 왜 받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들은 "인·허가 건마다 '주민동의서'를 행정 입맛대로 해석을 달리해 주민들간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해 주민 동의서를 명분으로 공무원의 묵인, 방조로 왜곡돼 인·허가 찬·반에 이용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영천시 건축디자인과는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의견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무사항이 아니라 단지 사전 인·허가 예고 사항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주민 의견과 관련없이 인·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이 대목에서는 축사 허가에는 주민동의서가 필요없다는 해석이다. 주민동의서가 과연 인·허가 알림 역할에 불과할까? 천만에다. 영천시는 다른 민원에서는 정반대로 적용했다. 영천시 자원순환과는



2021.12.21 단순허 「주민건강 및 주변환경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관련(주)지월이 신청한(종합재활용업)사업 인·허가를 반려처리한바 있다. 어떤 부서는 '주민동의서'가 형식적 예고용으로, 또 다른 부서는 '주민동의서'가 인·허가 필수조건으로 악용된 사례다. 이로 인해 현제도 (주)지월과 영천시가 2심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단순 주민동의서 미비로 허가를 반려한 사건을 영천시는 주민동의서가 아닌 다른 이유를 끼워넣어 1심에서 승소해 현재 2심을 다투고 있다. 이 재판은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데 법조인들의 이구동성이다. '주민동의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살펴본다. 악성 민원은 대부분 환경관련이다. 악취를 발생하는 축사나 자원재활용업, 태양광, 폐기물 등이 주로 민원의 대상이다. 영천시의 이번 청통면 축사 인·허가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악취나 수질오염 때문이다. 환경민원 관련 영천시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안) 제3조 나)목에는 「영

천시장은 폐기물 처리업 등 사업자에게 부지경계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거주하는 가구 수의 50% 이상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엄격히 말하면 주민동의서는 받아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영천시가 행정 편의주의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시달릴 경우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인·허가를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으로 제동을 걸었다. 환경부(자원재활용과)는 앞서 2020.12.12. 경상북도와 영천시 등 일부 지자체를 특정해 「동 법과 관련해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지자체가 각 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조례 등을 제정·시행하는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규정했다. 이들 조례·지침 등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라는 공문(경상북도 환경정책과 14408호)을 하달했으나 오히려 영천시는 더 강화했다. 환경부는 관련 인·허가제한 각 지자체 조례·지침에 대한 정비계획서를 2020.7.17까지 제출하라고 지침을 하달했지만 본지 확인 결과 영천시는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엄격한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번 청통면의 '주민동의서' 사태가 지난달 27일 결국 국민권익위에 넘어갔다. 영천시를 믿지 못하겠다며 중앙정부에 제기한 면민들의 진정 결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경북도, 이태리 피에몬테주와 어디까지... 상호협력 교류 확대

로봇제조, 이차전지 배터리산업, 농업등 경북도는 지난 2일 이탈리아 피에몬테주 알베르토 치리오(Alberto Cirio) 주지사의 방문으로 AI서비스 로봇의 제조, 이차전지 배터리산업, 자동차부품, 농업등의 양지역 간 교류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道는 피에몬테주는 역사, 산업 등의 공통

점이 많으며 다방면의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에몬테주 토리노에는 연매출 12억 달러 규모의 세계 산업용 로봇시장 5위 안에 꼽히는 로봇 제조기업 코마우(Comau·1973년 설립)가 소재해 있어 道는 AI서비스로봇의 글로벌 제조 생태계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상호 교류를 논의했다. 최근 피에몬테주 내 이베리아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배터리산업이 육성되고 있다. 경북도 또한 2019년 7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후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SK 등의 기업과 연계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전담팀 지원(SK그룹)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 포항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이차전지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를 논의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청 태권도단 강보라·강미르 선수 캐나다 오픈대회 '금' 파리올림픽 출전 향해

영천시청 태권도단 강보라(사진 우)·강미르(사진 좌) 선수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23 캐나다 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2일 전했다.

앞서 두 자매는(강보라 -49kg, 강미르 -46kg) 지난달 7~9일 태백시에서 열린 2023년도 국가대표선발 최종대회에서 동반 1위로 국가대표 자격을 획득했다.

이번 오픈대회에서 1위를 한 강보라·강미르 선수는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랭킹포인트를 각 20점씩 획득했다.

두 자매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U.S. 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 연이어 참가해 올림픽을 향한 도전하고 3월 중국 우시 월드컵태권도 그랜드슬램, 5월 아제르바이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대회를 통해 2024년 7월 개최될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이다. 장지수 기자



거여초, 유치원 4명·초등학교 5명 입학

거여초등학교(교장 김순남)는 지난 2일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본교 영어체험실에서 총 9명(유치원 4명, 초등학교 5명)의 신입생을 맞아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날 입학식은 입학허가를 시작으로 선생님 소개 및 환영사등으로 진행됐다.

또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효정 기자



차용대 신임 청도군체육회장 취임

경북 청도군 민선 2기 차용대 신임 청도군체육회장이 지난달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청도군체육회는 지난달 27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4층 대회의실에서 민선1, 2기 이·취임식을 가졌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사진)

이날 이·취임식에는 장상열 청도부군수, 체육회 임원 및 각 가맹단체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차용대 신임 회장은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주는 청도군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김효정 기자

구자근 의원, 공공기관 해외 대형공사 수주 참여 기회 확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예타 면제... 대형 해외수주 공사 쉽게 해

구자근(구비 갑) 의원이 공공기관들이 해외 대형공사 등의 수주 참여를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로 인한 사업검토 장기화 때문에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해외사업 참여를 통해 수익창출 및 사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시의성 있는 해외투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 발의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700조 규모의 네움(Neom) 사업을 비롯한 중동의 대형개발건과 해외 공항건설과 수자원 공사 등 대형 수주건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환경」을 비유로 들었다.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로 경쟁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관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는게 구 의원의 법 개정안 발의 두 번째 이유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2020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장기화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해 해외사업 4개월, 국

내사업 5개월 이내로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여전히 법개정 없이는 마찬가지다.

다만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사업의 시급성, 공공성, 재무성, 재무안정성, 위험도, 수출과급 또는 자원확보의 효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전제로 했다.

장지수 기자

제61회 도민체전 출전 영천시공도대표선수 7명 최종 엔트리 확정

지난달 25·26일 시대표 선수 선발전 완료 전지훈련 후 제61회 울진 경북도체 참가

오는 4월 21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제61회 경북도민체전에 출전할 영천시공도대표선수 7명이 지난달 26일 최종 확정됐다.(사진) 영천시 도민체전 참가 15개 종목단체 중 가장 빠른 첫 선수선발이다.

영천시공도협회(협회장 장지수)는 이날 25일과 26일 양일간 시민공도장과 금무정에서 개최한 영천시공도대표선수 최종 선발전에서 각궁 부문 4명과 개량궁 부문 3명 등 모두 7명의 시대표선수 선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시공도대표선수는 각궁에 정현종, 손승일, 박덕재, 신재국 4명과 개량궁 조복원, 배동준, 김영환 3명 등 모두 7명으로 선수 관리는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도 정연인 총 감독이 맡게 된다.

이들은 3월부터 약 45일간 전지훈련 등으로 팀워크를 이뤄 오는 4월21일부터 24일



사진=제61회 경북도민체전에 참가할 영천시공도대표선수, 왼쪽부터 각궁(4명=신재국, 정현종, 손승일, 박덕재), 개량궁(3명=조복원, 배동준, 김영환), 정연인 총감독

까지 경북 울진군에서 개최되는 제61회 경북도민체전 영천시공도대표선수로 참가하게 된다. 다만 궁도종목은 15일과 16일 양일간 사전경기로 치뤄질 예정이다.

한편, 체전 참가종목 중 영천시공도는 체

전 효자종목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대회에서도 경상북도 내 시부 2위를 차지해 시 참가종목 중 시립팀을 제외한 최고 성적을 거뒀다.

장지수 기자

경북교육, 학교급식·학생안전 등 교육정책 만족도 95.58% 긍정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 900명 중 372명 응답, 응답율 41.3%

학교급식, 교육비 경감, 학생 안전 등 경북교육의 교육정책 만족도에서 95.58%의 긍정 평가가 나왔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일 교육정책에 반영할 올해 '교육정책 추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평가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7일간) 유치원 28명, 초등학교 195명, 중학교 95명, 고등학교 52명, 특수학교2명 등 900명의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중 총 372명이 응답해 응답율은 41.3%다.

주요 내용은 △학생 주도형 수업 △행복교육 △창의융합교육 △학교급식 △인성교육 △학부모 교육비 경감 △생태 전환교육 △학생안전교육 등 19개 정책 분야로 95.8%(보통 포함)가 교육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발 등의 의견도 나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은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파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해 교육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지난해 9월 경북 포항교육지원청 모니터단 연수(사진=경북교육청)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 섭

등산·불륜·이혼·위자료 사건

정상부부는 성적 성실의무 부담해야 그러나 회복 불능 부부생활은 예외 10년 째 부부 파탄녀와 불륜관계는? 남편과 장기간 파탄상태 고착은 남남

문 최근 등산모임에서 한 유부녀와 친하게 지나다 보니, 불륜관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유부녀는 이미 오래전 남편과의 불화로 10년째 별거 중이었다. 그녀는 또 최근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해 놓았다. 이런 상태에서 그 유부녀의 남편은 저를 상대로 불륜관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이 경우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할까요

답 한마디로 위자료는 물어주지 않아도 될 듯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성적인 성실의무를 부담하며,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된다.

제3자 역시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런데 혼인에 의해 형성된 부부공동생활이 실제 혼인생활을 해본 결과 혼인당시 의도하였던 것과는 달리 상호간의 협조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 파탄상태가 굳어져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면, 비록 민법에서 정한 이혼절차에 따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의 생활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이미 실체가 소멸하여 회복 불가능한 부부공동생활이나 그에 관한 배우자의 권리가 사실상 침해되거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에 방해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귀하는 그 유부녀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그 파탄상태가 고착된 후에 그 유부녀를 만난 것이고, 불륜관계도 그들 부부 사이에서는 더 이상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맺은 것이어서, 귀하께서는 그 남편에게 위자료를 물어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김섭 변호사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울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윤영민 회계문답]



윤 영 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신たく으로 절세하는 법

신たく이란? 재산의 권리처분·운용 등 위·수탁 신たく의 종류... 자익신たく, 타익신たく -이익증여·장애인·유언대용신たく 장애인신たく-재산감소, 증여세 추정 유언대용신たく-상속인에 한해 특정

최근에 신たく을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데 오늘은 신たく이 무엇인가와 신たく으로 절세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신たく이란 신たく을 설정하는 자인 위탁자와 신たく을 인수하는 자인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권리, 처분, 운용, 개발 등 그 밖에 신たく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신たく재산은 신たく법에 따라 다른 신たく재산과 분리된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자익신たく과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익신たく으로 구분된다. 둘의 차이를 보면 자익신たく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타익신たく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특히 타익신たく의 경우 신たく 이익을 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수익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가진다.

신たく의 종류로서 이익증여신たく과 장애인신たく, 유언대용신たく이 있다. 이익증여신たく은 위에서 설명한 타익신たく인데 자산가들은 부의 분산을 목적으로 이익증여신たく을 활용한다. 장애인신たく의 경우에는 자익신たく에 한하여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면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타인신たく도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어 생전에 증여자가 미리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신たく원금 인출 등으로 신たく재산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된다. 유언대용신たく은 생전에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수탁자인 금융기관 등 신たく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신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수익자를 위해서만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할 수 있도록 체결한 신たく계약을 말한다. 유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건에 대비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익자인 상속인이 사망하면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게재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사설]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었다”

침소봉대(針小棒大)의 의미는 바늘처럼 작은 일을 몽둥이처럼 크게 부풀려 과(포)장하여 허풍을 떠는 것을 일컫는다. 지자체장의 홍보와 치적알리기에 주로 이용되어 진다.

이같은 치적·홍보는 윗선의 지시에 의해 행해지지만 거슬러 올라가 공무원 자가발전에도 머문다. 원하는게 있기 때문이다. (승진)목숨을 쥐고 있는 인사권자를 향해 과감하게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는 이 유다.

문제는 허풍이 지나치면 궤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허풍을 합리화 하기 위해 거짓까지 수반한다. 허풍을 현실화 하기 위해 아전인수(我田引水)를 넘어 중국에는 사슴(鹿)을 가리켜 말(馬)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로 발전한다.

이같은 침소봉대는 지난달 15일 영천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김상호 의원의 “영천시민은 안전하고 행복한가?”라는 5분발언에서 정점을 달렸다.

최기문 시장 취임 첫해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행정안전부 2023년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영천시는 전국 184개 지자체중 꼴찌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A~E 5단계 등급 중 최하위 등급이다.

1~5등급으로 나누는 사회안전지수 6개 지표중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생활안전 5개 항목이 5년 동안 줄 곳 최하위 4~5등급으로 안전하지 못한 불명예를 안았다. 한마디로 살고 싶지 않은 결과였다.

그런데 최 시장은 지금도 연일 「시민이 행복한 위대한 영천」이라며 허구적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다. 거짓도 100번 말하면 참이 된다고 했던가. 이 말을 시민들은 이를 곧이듣고 참인 줄 안다. 정치인 누군가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는 것과 무

침소봉대(針小棒大) 지록위마(指鹿爲馬) 안 되길 과유불급(過猶不及), 소탐대실(小貪大失) 안 되길 여론 조작하려는 범죄 의혹 반드시 꼭 밝혀야

엇이 다른가.

때문에 김상호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싫은 도시(영천)를 만들어놓고 이른 새벽부터 각 읍면동을 돌며 관광버스에 올라 영터리 치적 홍보로 시민의 안녕을 여쭙면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만 열중한다”며 맹비난했다.

이같은 과대 홍보는 최 시장 취임부터 시작됐다. 억지 치적 홍보가 여기에 속한다. 대표적인 것이 2019년 3월 실시한 재래시장 활성화 별빛야시장 퓨전사업이다. 취임 6개월 만에 야심차게 내놓은 일명 시장 내 포장마차사업이다.

그러나 시작 8개월여만에 파산했다. 그런데 실패한 이 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상까지 받고 대대적 홍보까지 나섰다. 참 뻥뻥스럽고 부끄러운 홍보다.

또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권기한 의원의 5분 발언에서 1200억원을 투자하고 매년 운영비 23억원을 들여 수익은 고작 7억원인데 작금 791석 영천시민회관을 1000석 규모 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중복 투자와 사업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의원은 영천시민 혈세(시비) 1200억원을 투자하는 새 문화예술회관보다 우리돈 한푼 들지 않고 공무원 100여명이 따라오는 경북도교육청(국·도비) 문화교육복지센터 건립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시장의 답변은 새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유를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나흘 뒤에 일어났다. 『새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이날부터 유무선전화로 실시한다』면서 “반드시 찬성에 한 표를 꼭 부탁드린다”는 문자 폭탄이 나돌았다. 이 문자를 최소 10명의 지인 또는 단독에 전달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다음 날인 2월 21일 영천시는 문자 사실이 전달되자 “즉각 여론조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누군가 여론을 조작하려는 범죄의혹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지금도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영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정말 간절히 염원합니다」는 수십명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른다”고 꼬리 자를 영천시다.

이 외에도 각 부서별 보도자료 발생 강요로 부서간 경쟁하듯 사소한 일들까지 앞다투어 심지어 오류와 부풀린 자료까지 (용비어천가) 보도자료 홍수 시대를 만들고 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지나치면 부족한만 못하다 했다. 과유불급(過猶不及)과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시정이 아니길 바란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통)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2023년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고등부, 일반부)

2023. 3.14(화) ~ 22(수) 영천체육관(경상북도 영천시)

주최·주관_ 대한태권도협회 KTA GBTA 경상북도태권도협회 YCTA 영천시태권도협회

후원_ 영천시 영천시의회 영천시체육회

협찬_ adidas 제우인터내셔널 K&P 나눔제약 N&PG

대한태권도협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koreatkd1961



2023년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고등부, 일반부) 요약

I 대회개요

- 기간 : 2023.3.14.(화)~22.(수)
- 장소 : 영천체육관 / 경북 영천
- 주최/주관 : 대한태권도협회, 경상북도태권도협회, 영천시태권도협회
- 후원 : 영천시, 영천시의회, 영천시체육회
- 협찬 : 아디다스, 나눔제약
- 종별
 - 가. 남자 : 고등 1학년부, 고등 2학년부, 고등 3학년부, 일반부(대학부 포함)
 - 나. 여자 : 고등 1학년부, 고등 2학년부, 고등 3학년부, 일반부(대학부 포함)

II 참가자격

- 2023년도 겨루기 선수 등록을 필한 자
- 고등부는 대회접수 시작일 이전의 전국규모대회 고등부에 입상하지 아니한 자
 - * 제2회 2·28민주운동기념 전국태권도대회의 입상자는 대회출전 및 접수불가
- 일반부(대학부 포함)는 대회접수 시작일 이전의 전국규모대회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에 입상하지 아니한 자
 - * 단, 각 부별 전국대회 5인 단체인 입상자는 대회출전이 가능함.

III 경기방식

- 경기방법
 - 가. 2023년도 개정 경기규칙 적용(3전다승제 방식 적용)
 - 나. 체급별 토너먼트로 개인전 실시
 - 다. 전 경기 KPNP 전자호구(전자머리보호대) 사용
- 경기시간
 - 가. 부별 각 2분 3회전, 중간 휴식 1분
 - 나. 단,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경기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IV 체급 및 계체일시

□ 고등부 : 10체급 (계체는 당일 대전 선수를 대상으로 경기전 날 실시함)

체급	고등부	
	남자	여자
핀급	52kg까지	45kg까지
플라이급	52kg초과 56kg까지	45초과 48까지
밴텀급	56kg초과 60kg까지	48초과 51까지
페더급	60kg초과 64kg까지	51초과 54까지
라이트급	64kg초과 68kg까지	54초과 57까지
웰터급	68kg초과 72kg까지	57초과 60까지
L-미들급	72kg초과 76kg까지	60초과 64까지
미들급	76kg초과 80kg까지	64초과 68까지
L-헤비급	80kg초과 84kg까지	68초과 72까지
헤비급	84kg초과	72kg초과

□ 일반부 : 8체급 (계체는 당일 대전 선수를 대상으로 경기전 날 실시함)

체급	일반부		체급	일반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4kg	54kg까지		-46kg	46kg까지	
-58kg	54kg초과 58kg까지		-49kg	46kg초과 49kg까지	
-63kg	58kg초과 63kg까지		-53kg	49kg초과 53kg까지	
-68kg	63kg초과 68kg까지		-57kg	53kg초과 57kg까지	
-74kg	68kg초과 74kg까지		-62kg	57kg초과 62kg까지	
-80kg	74kg초과 80kg까지		-67kg	62kg초과 67kg까지	
-87kg	80kg초과 87kg까지		-73kg	67kg초과 73kg까지	
+87kg	87kg 초과		+73kg	73kg 초과	

V 참가접수 및 대표자회의

- 참가접수
 - 가. 접수기간 : 2023.2.27.(월) ~ 3.7.(화) 18:00까지
 - 나. 접수방법 : 본회 인터넷 접수 (<http://reg.koreataekwondo.co.kr>)
 - 다. 참가비 : 30,000원 / 1인
 - * 접수기간 내 참가비 결제 필수 (기한내 참가비 미납자는 대진추첨에 제외)
 - 라. 확인 및 정정기간 : 2023.3.8.(수) 10시 ~ 17시
 - 마. 문 의 :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처(Tel.02-420-4271~3 / ARS 1번)
- 대표자회의 및 대진추첨 : 2023.3.9.(목) 14:00 / KTA 사무처 회의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회의 등 변경될 수 있음

VI 기타사항

- 시상 : 체급별 1,2,3위 입상자에게 상장 수여
- 선수·지도자는 계체 및 대회출전 시 2023년도 등록증을 필히 지참
- 경기에 입하는 선수는 본 회가 공인한 보호구를 갖추어 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실격처리됨
- 남·여 살포대, 팔·다리보호대, 손등보호대, 마우스피스, 전자감응양말 개인 준비해야 함
- 영상판독 및 소청 시, 대회운영본부에서 제공되는 영상자료를 기준으로 판독함
- 각 팀 관계자는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바라며, 불참한 팀은 회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회 참가 신청 후 부득이하게 불참할 경우 소속장(학교장 등)의 확인서 또는 의사진단서 제출 요망, 계체에 무단 불참하여 타 선수에게 피해를 줄 경우 향후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회는 선수의 여행자보험을 제외한 경기 중 상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현장의 본부석에 문의 바람
- 대회 참가자들은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동의한 것으로 함
 - 나. 대회 참가자들은 단체상해보험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함
 - 다. 단체상해보험 청구 시 대회장에서 의료팀이 작성한 의무기록지에 근거한 '부상확인서'를 보상서류와 함께 보험사로 제출
- 정경기간에 출전 선수 누락, 중벌 상이, 결제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요망
 - * 정경기간 이후 수정 불가 및 본인의 접수 실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대회 참가비 환불은 대진표 공지 후, 중복 입금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불가
 - * 환불 요청은 KTA 홈페이지에 대진표 공지 이전까지만 가능
- 본회 시스템상의 명백한 전산오류로 인하여 참가체급변경, 신청자 누락 등의 경우 해당 선수는 체급별 마지막 대진번호에 추가됨
- 대회 참가자들은 경기 영상 송출(유튜브, SNS 등) 관련,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대회요강 등 세부내용은 대표자 회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공지